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0~5/2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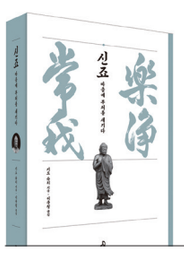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2	붓다 한말씀-초기 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이미령	불광출판사
3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미령	상상출판
4	숲속 성자들-경전 속 동물 마음 엿보기	이미령	담앤북스
5	시시한 인생은 없다	이미령	담앤북스
6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7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불광출판사
8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원택	장경각
9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10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	동은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싱갈라를 가르치다	일장 석혜능 편역	하늘북
2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3	법화경(하)	무비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4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5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7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9	혁명가 붓다	법륜	정토출판
10	법정 스님숨결	변택주 지음	큰나무

수행으로 새긴 '생활불교'의 길



신죠-마음에 부처를 새기다
기도 슈리 지음
이용철 옮김
불광출판사 / 3만원

일본 신뇨엔 창시자 삶·사상 조명
"모든 존재에 불성" 일상 수행 강조
'대승이타' 사회참여 재가불교 구현



신뇨엔의 창시자 이토 신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 수행에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일본 재가불교 지도자 이토 신죠(1906~1989)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신죠-마음에 부처를 새기다〉는 신뇨엔(眞如苑) 창시자인 이토 신죠의 수행 여정과 교학, 사회 실천을 따라가며 현대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성찰하게 하는 평전이다.

이토 신죠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태어나 30세에 교토 다이고지(醍醐寺)에서 출가했다. 이후 진언밀교 수행에 정진하며 전통 법맥을 계승하는 아사리(阿闍梨)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수행은 전통 종단 체계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쟁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는 불교가 현실의 고통과 삶의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고 보았고, 1936년 수행공동체를 시작으로 1948년 도쿄 다치카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가불교 교단의 기반을 세웠다. 훗날 세계적 재가불교 교단으로 성장한 신뇨엔의 출발이었다.

책은 이토 신죠 사상의 핵심으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대한 깊은 통찰을 꼽는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으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인간 존재와 불성(佛性)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는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으며,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자 역시 일상 속 수행과 실천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교 수행을 특정 공간과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토 신죠는 수행과 전법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불상을 조성하며 '마음에 부처를 새긴다'는 수행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입멸 직전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열반상을 비롯해 수많은 조각과 불사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행보는 일본 불교계에서 '쇼와의 불사'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불상 조성과 예술 활동 역시 수행의 연장이자 중생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본 것이다.

책은 신죠의 삶을 종교 지도자의 성공 서사로만 다루지 않는다. 전쟁과 사회 혼란, 가족사의 아픔 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고뇌와 실천 과정을 함께 담아낸다. 그는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불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동의 시대를 건너며 스스로 부처를 새기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성을 일깨우고자 했던 수행자. 〈신죠-마음에 부처를 새기다〉는 한 종교인의 생애를 넘어, 현대사회 속 불교의 가능성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AI시대, 시는 인간성 회복의 기틀"



승려시집 — 승려시인회 13집 —

진관 시집 — 禪茶의 어머니 황매산 — 홍인 선사의 차를 중심으로 모신 한 禪 노래

승려시인회 '승려시집' 13집 출간
22명 스님 시인 참여…198편 수록
진관 스님 등단 50주년 시집도
"스님 모두 '세상의 등불' 되길"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스님)가 열세 번째 동인지 〈승려시집〉을 발간했다. 1971년 창립 이후 한국 불교문학의 한 축을 이어온 승려시인회는 이번 시집에서 회원 22명의 시 198편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인간성과 시대정신을 시어로 풀어냈다.

승려시인회는 5월 12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승려시집〉 13집 출간을 알렸다.〈사진〉 승려시인회는 발간사에서 "AI시대의 창작활동은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며 "시는 더 이상 시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기록하는 도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 진관 스님의 등단 50주년 기념 시집 〈선차의 어머니 황매산〉도 함께 출간됐다.

진관 스님은 "시인은 저항을 넘어 세상의 등불이자 미래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과 불교인권운동,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등 소용돌이치는 현대사 속에서도 시를 써온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선차의 어머니 황매산〉 및 승려시인회 〈승려시집 13권〉 발간 기자회견

이어 "AI시대에 수행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는 창작활동"이라며 "부처님과 선지식들이 그랬듯 대한민국 승려 모두가 시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기원정사 설법, 소설로 깨어나다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스님 지음
북이랑 / 1만8000원

수보리존자 통해 기원정사로 안내
"난해한 해설 쉽게 읽히는 데 중점"

〈금강경〉이 해설의 틀을 벗고 한 편의 장엄한 소설로 재탄생했다.

고닐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의 신간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은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해공제일(解空第一)'로 불리는 수보리존자의 회상을 통해 독자들을 금강경 법회가 펼쳐졌던 2500년 전 기원정사의 한복판으로 안내한다.

혹을 물리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종교적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그려진다. 특히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은 〈금강경〉 특유의 난해한 문장 구조와 '즉비논리(卽非論理)'를 현대인의 언어로 해체하고 다시 엮었다는 점이다.

고닐 스님은 5월 6일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서 "〈금강경〉만큼 수많은 역해가 이뤄진 경전도 드물고 난해한 원전을 해설한 책들이 오히려 또 다른 난해함을 더해 온 폐단 또한 없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편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집필 과정만 무려 10여 년. 1990년대 승가대학 재학 시절부터 경전의 한글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스님은 5년 전 초고를 완성한 후 수십차례 원고를 수정 보완해오다 우연한 기회에 고은 시인을 만나 소통하며 집필을 완결할 수 있었다. 고은 시인은 추천사에서 "금강경 평설을 낸 내 눈에도 이 책은 퍽 색다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일독을 권했다.



고닐 스님은 5월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강경〉을 누구나 편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고 말했다.

소설은 〈금강경〉에 담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21세기 언어로 풀어쓴 팩션(faction) 소설이다.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으로 되살려냈다.

이야기는 부처님 생애와 수행 여정을 치밀하게 추적하며 시작된다.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처음 깨닫게 되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충격적 진실, 처절한 고행 끝에서 마주한 한계, 그리고 마침내 마왕 파순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종교적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그려진다. 특히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은 〈금강경〉 특유의 난해한 문장 구조와 '즉비논리(卽非論理)'를 현대인의 언어로 해체하고 다시 엮었다는 점이다.

고닐 스님은 법주사승가대학과 선원 각처에서 수행했다. 조계종 포교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행 최북단 백련동 몽운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다. 유튜브 '새불교운동'과 부루나 '설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명은 부명, 고닐은 법호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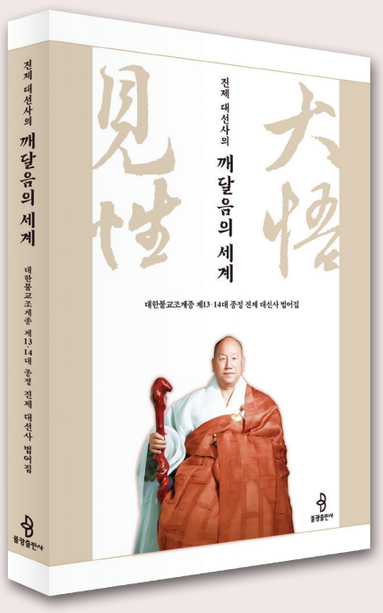
빈한한 삶을 진정한 풍요로 이끄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

우리 불교의 살아 있는 선지식,
진제 대선사의
'참나를 밝히는 깨달음의 세계'!

"
지혜야말로 삶의 근본이며,
지혜를 잃은 삶은 빈한할 수밖에 없다.

화두를 참구하여 지혜를 밝히는 일은
곧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이다.
"

진제 법원 지음 | 304쪽
23,000원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대한불교조계종 제13·14대 종정
진제 대선사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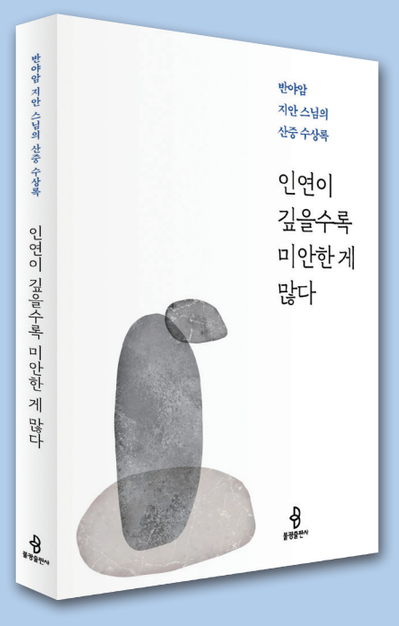
해 뜨면 눈부시게 행복하고
별 뜨면 조용하게 반짝이는 삶

우리 불교 대표 강백,
지안 스님이 전하는
'한적한 행복'!

"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말보다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서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

지안 지음 | 224쪽
19,000원



반야암 지안 스님의 산중 수상록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